

장성 황룡강 '노란꽃창포' 전국 최대 꽃밭 된다

군·황룡강·취암천 4km 구간에 노란꽃창포 20만 본 추가 식재
'엘로우시티' 색채 마케팅 모티브...관광명소·지방정원 지정 추진

'엘로우시티'의 꽃줄인 황룡강·취암천 4km에 노란꽃창포가 피어난다. 전국 최대 규모의 꽃창포 단지다.

장성군은 황룡강 노란꽃창포 단지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취암천을 비롯한 4km 구간에 꽃창포 20만본을 추가로 심는다고 22일 밝혔다.

노란꽃창포는 일반 수생식물보다 수질정화능력이 5배 가량 뛰어나고, 노란 나비를 연상시키는 자태는 군락을 이뤘을 때 아름다움이 배가된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해 7월 민선 7기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황룡강변에 대규모 노란꽃창포 단지 조성을 위해 1.7km 구간에 32만본의 꽃창포를 심었다.

지난해 가을 세 차례 몰아친 태풍을 견뎌낸 노란꽃창포는 올봄 300만 송이의 꽃망울을 터뜨려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노란꽃창포가 어우러진 황룡강은 장성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엘로우시티'라는 색채 마케팅을 구

상한 모티브가 된 곳이다.

장성군은 잦은 범람으로 인해 방치돼 있던 이곳에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치수 기능을 강화했다.

주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화초류를 심고 매년 가을이면 '노란꽃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만 방문객을 불러 모으면서 전남 지역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엘로우시티의 발원지인 황룡강을 더욱 가치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황룡강 관광 명소화·지방정원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란꽃창포 단지를 조성해 황룡강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황룡강은 국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산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황룡강과 취암천 일원 4km 구간에 노란꽃창포 20만본을 추가로 심는다. <장성군 제공>

강진 청자축제 취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강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48회 강진청자축제'와 '제5회 강진만춤는갈대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자축제는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갈대축제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었다.

강진군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과 가을철 대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전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황호용 축제추진위원장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취소했다"며 "축제 취소로 인해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축제는 취소됐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 청자를 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화꽃 장식 등 일부 편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농업인 400명에 여름철 '맞춤 영농컨설팅' 호응

벼·고추 농사 현장 애로사항 해소
코로나19 확산 비대면 방식 전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농업인에게 고추 병해충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여름철 65개 마을 농업인 406명을 찾아가 영농 컨설팅을 해줬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컨설팅'은 농촌이 여름철에 겪는 영농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7월10일까지 진행했다.

화순군은 ▲벼, 고추, 참깨 등 여름철 주요 재배작목의 핵심 재배기술 ▲작물별 대저 요령 ▲병해충 방제법 등 여름철에 꼭 필요한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농업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다.

교육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교육 진행 기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비대면 컨설팅은 마을별 교재 배부와 이장의 우선 연락을 통해 진행됐다. 대면이 필요한 컨설팅 때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도암면의 한 농업인은 "여름철 이번 날 걱정이 많았는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

접 살피며 컨설팅을 해주니 곧바로 궁금증을 해소하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만큼 카드뉴스, 동영상, 포스터 등 비대면 영농기술 지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현장 컨설팅을 강화해 영농 기술을 향상하고 재해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탑승 혼선' 나주 700번 버스 2개 노선 분리

동신대~빛가람병원은 '7001'
7002번은 '우정로 방면' 운행

나주시는 동신대학교-빛가람동 구간 2개 노선을 운행하는 700번 시내버스를 탑승객 편의를 위해 '7001번'과 '7002번'으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700번 버스는 동신대에서 출발해 나주역을 거쳐 농어촌공사 사거리에서 '그린로' (빛가람병원 후문 중점)와 '우정로' (우정정보사업센터 중점)방면으로 나뉘어 2개 노선을 운행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운행 노선을 모르고 버스에 탑

승하거나 목적지와 반대 방면으로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700번 버스를 7001번과 7002번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7001번(그린로 방면) 버스는 '동신대-나주역-농어촌공사-빛가람초-중학교-빛가람병원 후문'을 오가고, 7002번 버스(우정로 방면)는 '동신대-나주역-우미린아파트-중흥2차-우정정보사업센터' 구간을 운행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탑승객 편의를 최우선해 기존 노선을 유지하되 버스 번호만 분리·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운영 중지 경로식당 68곳에 대체급식 직접 배달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식당 68곳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급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담양군은 경로식당 운영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은 383명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와 지원

봉사단체에서 밀면과 라면과 김, 빵, 도시락 등을 직접 배달한다.

또 대체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어르신 600명에 대해서는 읍면 공무원과 이장 등이 하루 한 차례씩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결식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거점급식소 2개소와 연계해 대체급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로식당 이용이 중지돼 복지공백이 우려된다"며 "취약계층의 복지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꼼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흥 천관농협, 코로나19 예방 비말 마스크 1만5000장 지원

장흥 천관농협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합원과 지역 6개 초·중·고등학교에 비말 마스크 1만5000장(11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

천관농협은 앞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 지역 45개 영농회와 노인정 등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50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김의중 천관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조합원과 학생들에게 사회공헌 차원에서 방



역마스크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